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 2020. 8.

국립국어원 2020. 8.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2020. 8.

쉽게 읽는 문법 용어(1) **문법 범주(1)**

실전 띄어쓰기(1) **문장 부호, 이렇게 쓰세요!**

국어원 소식 (1) **말뭉치란 무엇일까요?**

우리말 다듬기(1)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반려동물 공공 예절**

표준어 바깥의 세상 **자구뱅이와 얼마우재**

말뭉치로 바라보기 **사라진 말들, ‘안내양’, ‘간호원’, 그리고 ‘장애우’**

하 - 이 자

**광복 75주년 기념
우리 말글 지키기 운동**

다 | 마 | 는 |

쉽게 읽는 문법 용어(2) **문법 범주(2)**

실전 띄어쓰기(2) **호우주의보 더는 안돼-‘안 되다/안되다’ 띄어쓰기**

국어원 소식 (2) **컴퓨터가 말을 학습한다고요?**

우리말 다듬기(2) **소비로 나를 표현하는 소신 소비**

우리말, 그리고 사람 **우리말 ‘너는 내 운명’ 해외 공연 가서 한국어 가르치는 음악가 이호섭**



목차

심표, 마침표. | 2020. 8.

국어 배우기

2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법 범주(1)
6		문법 범주(2)
10	표준어 바깥의 세상	자구뱅이와 얼마우재
14	실전 띄어쓰기	문장 부호, 이렇게 쓰세요!
16		호우주의보 더는 안돼-‘안 되다/안되다’ 띄어쓰기

국어 알리기

18	국어원 소식	말뭉치란 무엇일까요?
24		컴퓨터가 말을 학습한다고요?
30	국어정책 통계	광복 75주년 기념 우리 말글 지키기 운동
32	우리말 다듬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반려동물 공공 예절
34		소비로 나를 표현하는 소신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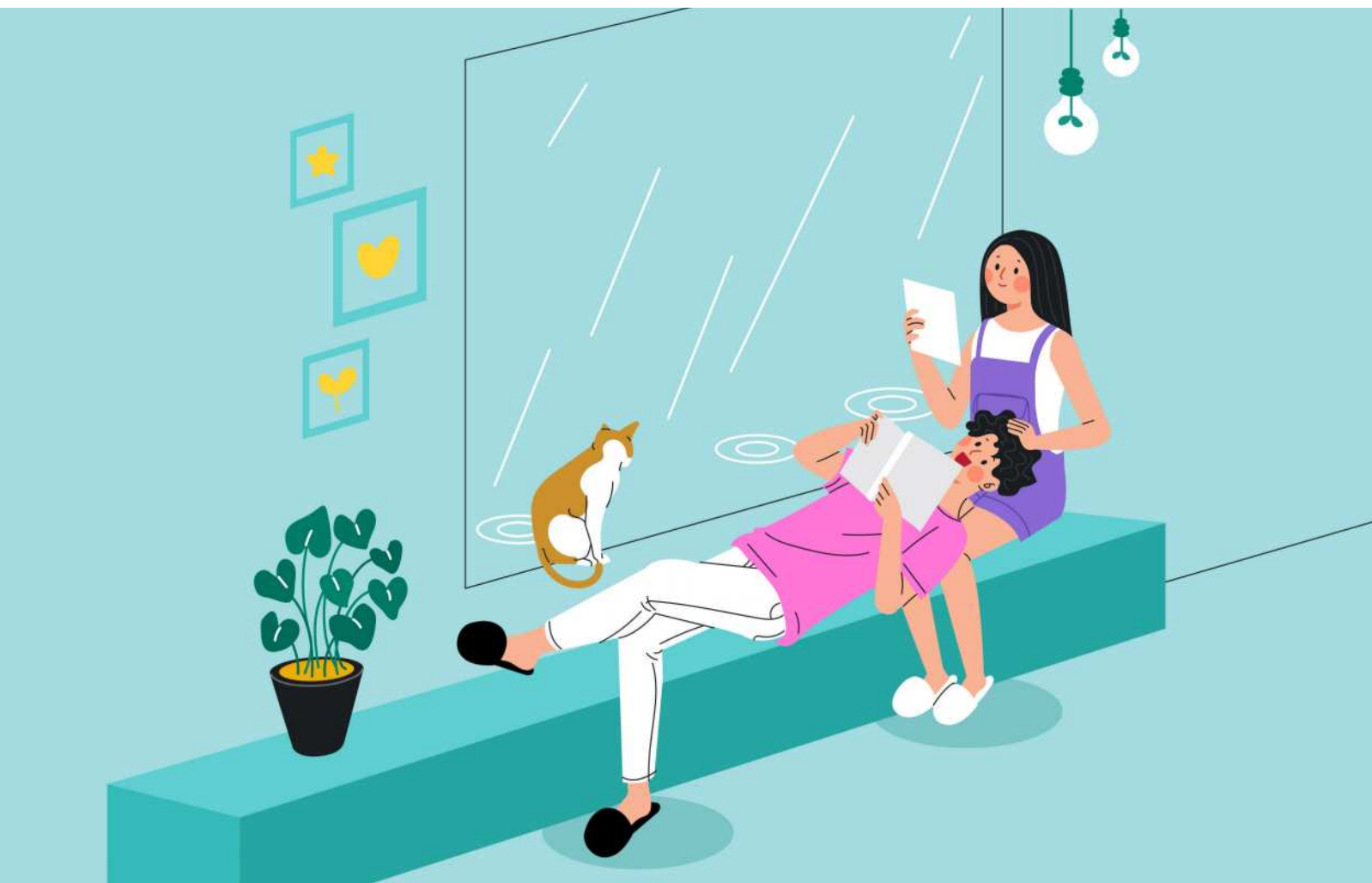
국어로 바라보기

36	말뭉치로 바라보기	사라진 말들, ‘안내양’, ‘간호원’, 그리고 ‘장애우’
40	우리말 그리고 사람	우리말 ‘너는 내 운명’ 해외 공연 가서 한국어 가르치는 음악가 이호섭

국어로 함께하기

48	기획 행사	설문조사 당첨자 발표
50	우리말 풀기	독자 참여 행사
54		독자 참여 행사

문법 범주(1)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자, 이제 문법을 문장 단위로 확장하면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 살펴볼 때가 되었다.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크게 구조적 설명과 기능적 설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령 휴대폰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할 때, 휴대폰의 물리적 구성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설명할 수도 있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할 수도 있다.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문장 이하의 단위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구조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고, 문장에 어떤 문법적 기능이 들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다. 휴대폰의 기능을 잘 아는 것이 휴대폰의 구조를 잘 아는 것보다 더 유용한 것처럼 문장의 경우도 보통 구조보다는 기능을 아는 것이 더 유용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문장을 기능 면에서 살펴볼 때 사용되는 문법 용어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그 전에 알아 두어야 할 배경지식이 있다.

- (1) 오늘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 오늘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1)과 (2)의 의미를 상세히 알아보는 것은 이 연재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용어 설명에 집중하도록 한다. 우선 (1)에서 ‘오늘, 비, 내리.’와 같은 말이 어떤 실질적 개념을 전달하는 데 반해, ‘은, 가, -겠-, -습니다’는 문법적인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앞엣것들을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뒤엣것들을 문법 형태소라고 한다. 가령 ‘내리겠습니다’에서의 ‘-겠-’은 ‘미래’라는 문법적인 개념을 전달한다. 그런데 (2)의 ‘내릴 것입니다’에 들어 있는 ‘-ㄹ 것이-’는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면서도 ‘-겠-’과 유사한 의미를 전달한다.

즉 문법 형태소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항목들을 ‘준문법 형태’ 혹은 ‘준문법 형식’이라고 한다.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의 기능을 살펴본다는 것은 문법 형태나 준문법 형태의 기능을 살펴본다는 뜻이다.

문법 형태나 준문법 형태가 표현하는 의미를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라고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들에서는 ‘문법 요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법 범주라는 말이 학생들에게 어려워 용어를 다소 쉽게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언어의 문법 범주는 대단히 많지만, 이 연재에서는 우리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주요 문법 범주만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체언이 문장에서 하는 기능을 형태적으로 표시하는 체계를 ‘격(格)’이라고 한다. (1)에서 ‘비’는 문장에서 주어 기능을 하고 있고 조사 ‘가’가 그 기능을 형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가’는 주격 조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등과 같은 용어가 쓰이고 있다.

둘째, 문장을 통해 화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를 기준으로 분류된 체계를 ‘문장(의) 유형’이라고 한다.

- (3) 내일 공원에 간다.
(4) 내일 공원에 가니?
(5) 내일 공원에 가라.
(6) 내일 공원에 가자.
(7) 내일 공원에 가는구나!

(3)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사실을 서술하려는 의도를 가진 문장, (4)는 질문을 하려는 문장, (5)는 명령을 하려는 문장, (6)은 청유를 하려는 문장, (7)은 화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 감탄이나 놀라움을 나타내려는 문장이다. 이를 순서대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라고 하는데, 국어에서는 문장 유형을 보통 이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3)~(7)에서 보듯이 문장 유형은 종결 어미에 의해 나누어지므로 흔히 ‘문장 종결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고등학교의 교과서들에서는 교육적 편의를 위해 ‘종결 표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서법’이라는 용어도 흔히 써 왔으나,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문장 종결법이라는 용어를 무리 없이 쓸 수 있으나, 화자의 의도를 문장 종결 부분에 담지 않는 다른 언어들을 생각하면 문장(의) 유형이라는 용어가 더 유리하다.

‘문법 범주’와 관련된 용어,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실질 형태소: 실질적 개념을 전달하는 형태소

문법 형태소: 문법적 개념을 전달하는 형태소

준문법 형태: 문법 형태소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

문법 범주: 문법 형태나 준문법 형태가 표현하는 의미를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것

격: 체언이 문장에서 하는 기능을 형태적으로 표시하는 체계

문장의 유형: 문장을 통해 화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를 기준으로 분류된 체계

문법 범주(2)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시제, 상, 양태를 살펴본다. 한국어의 주요 문법 범주 개수를 독자가 기억하기 좋도록 ‘셋째’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셋째, 시제(tense)는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시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인류 모두의 머릿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다 있지만, 그것을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마다 다르다. 구별되는 시제가 없는 언어, 구별되는 시제가 2개인 언어, 구별되는 시제가 3개인 언어가 있는데, 우리말은 학교 문법에서 3개의 시제, 곧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는 언어로 설명한다.

- (1) 희주가 책을 {읽었다, 읽는다, 읽겠다}.
- (2) 희주가 책을 읽었겠다.

(1)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읽었다’는 과거의 일이고 ‘읽는다’는 현재의 일이며 ‘읽겠다’는 미래의 일이다. 그러한 시간적 관념을 각각 문법 형태소 ‘-었-, -는-, -겠-’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을 시제가 3개인 언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2)에서 보듯이 과거의 일에도 ‘추측’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겠-’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말에는 미래 시제에만 붙이는 문법 형태소는 없다고 하여 미래 시제를 인정하지 않는 문법학자들도 많다.

넷째, 상(aspect)은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시간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특히 움직임이 없어 정적인 상태보다는 움직임이 동반되어 동적인 사건에서 상 범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진행’과 ‘완료’이다.

- (3) 정호가 책을 읽고 있다.
- (4) 사과가 잘 익어 있다.
- (5) 정호가 책을 {읽고 있었다, 읽고 있을 것이다}.

(3)은 ‘읽다’라는 사람의 동작(외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곧 시간적으로 진행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 어간 ‘읽-’과 종결 어미 ‘-다’를 뺀 나머지 부분 ‘-고 있-’이 진행상을 나타내는 준문법 형태이다. (4)는 ‘익다’라는 사물의 작용(내적 움직임)이 다 끝난 완료 상태임을, 곧 시간적으로 완료된 모습을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

‘-어 있-’이 완료상을 나타낸다. 상은 시제와 비슷해 보이나 구별되는 개념이다. (3)에서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이 현재의 일에 쓰였는데 (5)에서는 과거, 미래의 일에 쓰이고 있는 사실을 보면 상과 시제가 구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양태(modality)는 화자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바꿔 말하면 양태는 화자가 문장에 자신의 심리(정신)나 감정(마음)을 담는 수단이다. 우리말은 양태 표현이 상당히 발달한 언어로서 다양한 문법 형태나 준문법 형태를 통해 양태가 표현된다. 양태는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워서 학교 문법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 (6) 현우가 {똑똑하겠다, 똑똑하네}.
- (7) 너는 여기서 {밥을, 밥이나} 먹어라.
- (8) 그 사람이 {갔다, 가 버렸다}.

(6)의 기본적인 문장 의미는 ‘현우가 똑똑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똑똑하겠다’는 화자가 그 사실을 추측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똑똑하네’는 화자가 현우가 똑똑한 것을 현재에 직접 보고 알았음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미 ‘-겠-, -네’는 모두 문장의 객관적 내용이 아닌 화자의 심리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양태는 어미뿐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가령 (7)에서 ‘밥을’과 ‘밥이나’를 비교하면 보조사 ‘이나’는 밥을 하찮게 여기는 심리를 드러낸다. 또 (8)에서 ‘갔다’와 ‘가 버렸다’를 비교하면 준문법 형태 ‘-아 버리-’를 통해 화자의 실망감이나 아쉬움이 드러난다. 이상 소개한 양태 표현들은 방산의 일각으로서 우리말에서 양태는 화자의 다채로운 심리와 감정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문법 범주이다.

(9) 사과가 잘 {익었다, 익어 있다}.

특정 문법 형태나 준문법 형태는 시제, 상, 양태 중 둘 이상의 문법 범주와 관련될 때가 있다. (1)에서 ‘-겠-’은 미래 시제 형태소인데 (2)에서는 ‘추측’이라는 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9)에서 ‘-었-’은 과거 시제 형태소이지만 ‘-어 있-’과 같이 완료상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개념적으로 세 범주는 서로 구별되지만 실제로는 서로 얹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법 범주’와 관련된 용어, 다시 정리해 볼까요?

- 시제:**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시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음.
- 상:**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시간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 진행상, 완료상 등이 있음.
- 양태:** 화자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 ‘추측’, ‘경시(輕視)’, ‘실망감’ 등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가 있음.

자구뱅이와 얼마우재



글. 이길재(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 아이들은 시베리아 각 도시에서 공부를 위해 모여든 **{자구뱅이였다}**. 《정철훈(2009): 김알렉산드라》¹⁾

1) <<김알렉산드라>>는 전남 광주 출신의 소설가 정철훈이 쓴 소설이다.

정철훈의 소설 《김알렉산드라》는 두만강 유역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 운동가 ‘김알렉산드라’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다. ‘자구뱅이’는 ‘자구’와 ‘-뱅이’가 합쳐진 말인데, 여기서 ‘-뱅이’는 ‘가난뱅이, 주정뱅이, 게으름뱅이’에서 보듯 주로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 쓰는 말이다. 그럼, ‘자구’는 무슨 뜻일까? 다음의 예를 살펴보면, 그 뜻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한인 가운데 러시아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기 위해 조직한 **{자구뱅이}** 학교가 있었다. 《정철훈(2009): 김알렉산드라》

위의 용례를 통해서 ‘자구뱅이’는 ‘한인과 러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키는 말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뱅이’가 쓰인 것으로 보아 이들을 어지간히 비하하는 의미도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알렉산드라의 부친이 함경도 사람이고 이 소설의 주무대가 두만강 유역인 것을 감안하면 ‘자구뱅이’는 함경도 지역의 방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 함북 지역에서는 ‘짜구배, 짜그배’, 중국의 조선족의 근거지인 연변 지역에는 ‘자구배, 자고배, 자그배’ 등 ‘자구뱅이’와 같은 유형의 방언형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배(輩)’는 ‘불량배, 폭력배, 소인배’ 등에서 보듯 ‘무리를 이룬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 그래 사람들은 이 소를 필경은 남방물소와 북방소를 흘레 붙이여 만든 “짜구배”인 모양이라고 **{짜구배라고}** 별칭했다. 《리원길(1992): 춘정》(중국)
- 황보상근령감네 거리에서는 정찬식이가 대표가 되어 제비를 뽑았는데 재수 사납게 검정소 **{짜구배를}** 뽑게 되었다. 《리원길(1992): 춘정》(중국)

중국 조선족의 근거지인 연변 지역의 소설 작품에서도 ‘짜구배’가 쓰인 용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남방 물소와 북방소가 교잡하여 태어난 새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넓게 보면 ‘종이 다른 두 개체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종’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같다고 하겠다. 다만, 이를 사람에 대해 썼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 아는 일이지만 혼혈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부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 여러 민족 사는 나라에서는 젊은 사름덜이 서르서르 결혼해서 **{자그배덜이}** 나닌다. 《겨레말큰사전, 중앙아시아 고려인》
- 그 집 아이 **{자고배}** 아니야? 엄마가 다른 러시아 사름이잖아. 《겨레말큰사전, 중앙아시아 고려인》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에서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언어를 현지인을 통해 직접 조사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도 ‘고려인과 러시아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키는 말로 ‘자구배, 자고배, 자그배’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용례는 이 말이 혼혈인이 아닌 ‘러시아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 **{자고배들이}** 우리한테 많이 배웠지. 옛날에 **{자고배덜으}** 집안에서도 신발 신고 다니고 했어. 《겨레말큰사전, 중앙아시아 고려인》

또한 고려인 사회에서는 ‘올고배, 올구배’라는 말도 쓰이는데, 이는 ‘자고배’ 즉 ‘고려인과 러시아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과 고려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자구뱅이, 자구배’와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로 ‘얼마우자, 얼마우재’가 있다.

- 또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정말 노서야 사람의 피가 한번이라도 섞였으면 어느 때든지 그것이 어린애에게 옮겨서 유표한 **{얼마우자가}** 생긴다고 하였다. 《한설야(2011): 탐》 (북한)
- 지금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 흔히 항간에서 **{얼마우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속에 류가이라는 사람도 있다. 《정기중(2008): 열병광장》 (북한)

‘얼마우재’는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얼마우재 [명]

전날에, 얼치기 마우재라는 뜻으로 《로씨야사람이 아닌데 로씨야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

《박일리아, 오하푹, 김뽕돌, 최빠샤... 이름부터 더러운 얼마우재놈들... 튜!》 허근은 분노에 치받쳐 침까지 뱉었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 하) (《조선말대사전》 2007)

《조선말대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얼마우재’는 ‘덜된, 모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 ‘얼-’과 ‘러시아인’의 함경도 방언 ‘마우재’가 결합된 말이라 할 수 있겠으나, ‘러시아에 사는 타민족’을 의미하는 중국어 ‘二毛者[알마오즈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는바, 어느 것이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구뱅이’류나 ‘얼마우재’류는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만 그 쓰임이 확인되고 남한 지역에서는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남한 지역에서는 러시아인과 혼인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을 만들어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트기가}** 아니라는 그의 말을 믿어주는 아이는 허만호 하나뿐이었다. 《이상문(1986): 황색인》 (남한)
- 장군이 **{되트기}** 줄개들과 함께 북녘을 휘젓고 다닌 지 한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차츰 그들에게 냉담해지기 시작했다. 《이문열(1990):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 (남한)
- 그 틈을 타 어떤 **{양트기가}** 한때 미국에서 한국의 왕자 행세를 한 적도 있다지만, 어떤 의미로 우리의 왕자들은 일본과의 첫 싸움에서 산화한 투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으리라. 《이문열(1990):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 (남한)

남한에서는 혼혈인을 비하하는 말로 ‘튀기, 트기’ 같은 말이 쓰였다. 그리고 여기에 ‘양(洋)-’이나 ‘되-’ 따위를 덧붙여 쓰기도 했는데, ‘양트기’는 ‘한인과 서양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되트기’는 ‘한인가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킨다. 모두 지금은 삼가야 할 말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서는 혼혈인을 뜻하는 말로 ‘튀기, 트기’ 등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말에 대응되는 북한말은 ‘번지기’이다. 북한에서 ‘번지다’는 “사람의 모습이나 됨됨이가 자라면서 달라지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번지기’는 이 말뜻에서 비롯되어 만들어진 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남한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다.

‘자구뱅이’와 ‘얼마우재’는 나라가 힘을 잃어 제 살던 고향을 떠나 만주 벌판으로, 중앙아시아로 내몰렸던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상처 가득한 말들이다. 나라를 되찾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지금, 더구나 다문화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말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도 그곳에서 역사의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는 이들까지 잊지는 말아야겠다.

문장 부호, 이렇게 쓰세요!

실전 띄어쓰기



빗금 /

이럴 때 앞뒤를 붙여 써요.

- 금메달/은메달/동메달
- 초식 동물/육식 동물/잡식 동물(원칙)
- 초식 동물/육식 동물/잡식 동물(허용)
- ⇒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다만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음.
- 100미터/초
- ⇒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이럴 때 앞뒤를 띄어 써요.

-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다만 연이 바뀌는 부분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씀.

줄임표

이럴 때 앞뒤에 붙여 써요.

-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 ⇒ **할 말을 줄였음을 나타낼 때**
- “빨리 말해!”
- “…….”
- ⇒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 저기…… 있잖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 ⇒ **머뭇거림을 보일 때**

이럴 때 앞뒤를 띄어 써요.

- 육십갑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신유, 임술, 계해
- ⇒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물결표 ~

⇒ **불임표(-)를 대신 쓰는 것도 허용돼요.**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써요.

- 8월 15일~8월 17일
- 김정희(1786~1856)
- 서울~부산

문장 부호, 이렇게 쓰세요!

! ? . , “ ” () [] “ ” : / < > }

문서, 전자 우편, 자기소개서 등을 쓸 때 은근히 신경 쓰이는 문장 부호의 쓰임과 띄어쓰기, 잘 알고 계신가요?

쌍점

이럴 때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써요.

- 문장부호: 마침표, 심표, 따옴표 등
- 일시: 2020년 8월 15일
- ⇒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어가 설명을 붙일 때

이럴 때 앞뒤를 붙여 써요.

- 10:20(10시 20분)
- 「국어기본법, 14:1(제14조 제1항)」
- ⇒ 사분·초(시간), 관·장·절(글의 내용 구분 단위), 항·호(법률 항목의 단위) 등을 구별할 때
- 7:3(칠 대 삼)
-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 ⇒ 의존명사 ‘대’ 대신 쌍점을 쓸 때

호우주의보 더는 안돼 '안 되다/안되다' 띄어쓰기

실 전 띄 어 쓰 기

호우주의보
"더는 안 돼……"

실 전 띄 어 쓰 기

국립국어원

실 전 띄 어 쓰 기

국립국어원



생활이 안될 정도로 집이 망가지고,
발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띄어 쓰냐 붙여 쓰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헷갈리는 '안 되다/안되다' 띄어쓰기!
함께 알아볼까요?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안 되다/안되다' 띄어쓰기

이럴 때 붙여요!

- 폭우가 와서 농사가 **잘 안됐어.** > 동사 일, 현상, 물건 등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음.
-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 동사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함.
- 이번 시험에 **안되어도** 우리 중 세 명은 합격할걸. > 동사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함.
- 그것 참 **안됐네.** > 형용사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안짱음.
- 크게 앓더니 얼굴이 많이 **안됐**구나. > 형용사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상해 보임.

'잘되다'의 반대 개념이거나 위의 뜻을 가진
형용사일 때, '안되다'와 같이 붙여 써요.

이럴 때 띄어요!

- 그렇게 하면 **안 돼.** > 금지
- 그 친구는 걱정이 **안 돼.** > 부정
- 되든 **안 되든** 일단 해 보자! > 이루어지지 않음.

'안'과 '되다'가 결합된 부정 표현일 때,
'안되다'와 같이 띄어 써요.

뜻을 다르게 하는 띄어쓰기

- 여기서는 공부가 잘 **안 돼.** >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뜻('잘되다'의 반대)
- 여기서는 공부하면 **안 돼.** > 공부가 금지되었다는 뜻('되다'의 부정)

실 전 띄 어 쓰 기

국립국어원



되든 **안 되든** 띄어쓰기도 자주 연습하다 보면
우리말 실력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실 전 띄 어 쓰 기

국립국어원

실 전 띄 어 쓰 기

국립국어원

호우주의보
"더는 안 돼……"

'안 되다/안되다'
띄어쓰기



마음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세한 비가 쏟아지던 날들

말뭉치란 무엇일까요?



오늘 서울은 아침에는 흐렸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거예요.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올라갈 예정이에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 바깥 활동을 하려면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날씨 좀 알려 줘.

오늘 한글이랑 자전거 타고 박물관 가기로 했는데...



요즘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날씨를 물어보고, 박물관 전시 안내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인공 지능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는 걸까요?
인공 지능이 우리말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말뭉치' 때문이랍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속에 숨어 있는 비밀 자료 '말뭉치'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말뭉치란 무엇일까요?



'말뭉치'는 언어학 용어인 코퍼스(corpus)를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에요.
'실뭉치', '숨뭉치'에서 '뭉치'는 '한데 뭉치거나 말거나 감은 덩이'를 말하죠.
그렇다면 '말뭉치'는 말[언어]을 한데 모아 놓은 덩어리가 되겠네요.

말은 왜 모을까요?

언어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를 쓰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를 들여다봐야 할까요? 사실, 뇌를 열어봐도 알 수 없어요.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거나 글로 써 놓은 언어의 일부를 분석해서 전체 언어의 모습을 유추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언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 자료의 일부를 표본으로 모아 놓은 것이 말뭉치랍니다.

말을 모아두기만 하면 될까요?

신문을 모으면 신문 말뭉치, 소설을 모으면 소설 말뭉치, 대화를 모으면 대화 말뭉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쌓아둔 종이 신문이나 책꽂이에 꽂힌 소설책들을 말뭉치라고 하지는 않아요. 단순히 모으기만 해서 활용할 수 없거든요.

말뭉치는 컴퓨터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뭉치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언어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말뭉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신문 말뭉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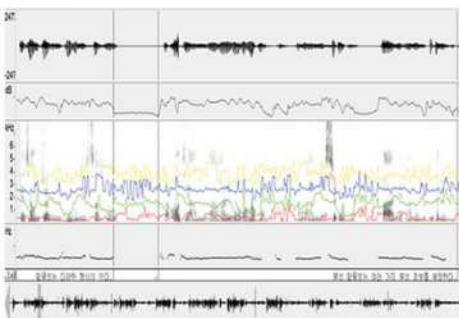
대역 말뭉치



말뭉치



수어 말뭉치



음성 말뭉치

말뭉치는 어디에 쓰일까요? - 사전 편찬



말뭉치를 분석해서 우리 국어의 모습을 오롯이 담아낸
국어사전을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전을 편찬할 때 사전 편찬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단어의 뜻을 기술하거나 용례도 사람이 일일이 수집했지요.

그러나 말뭉치를 활용하면서부터 많이 쓰이는 단어를
올림말로 결정하고 뜻을 객관적으로 풀이하며,
많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용례를 말뭉치에서 쉽게 찾고
분석해서 사전에 수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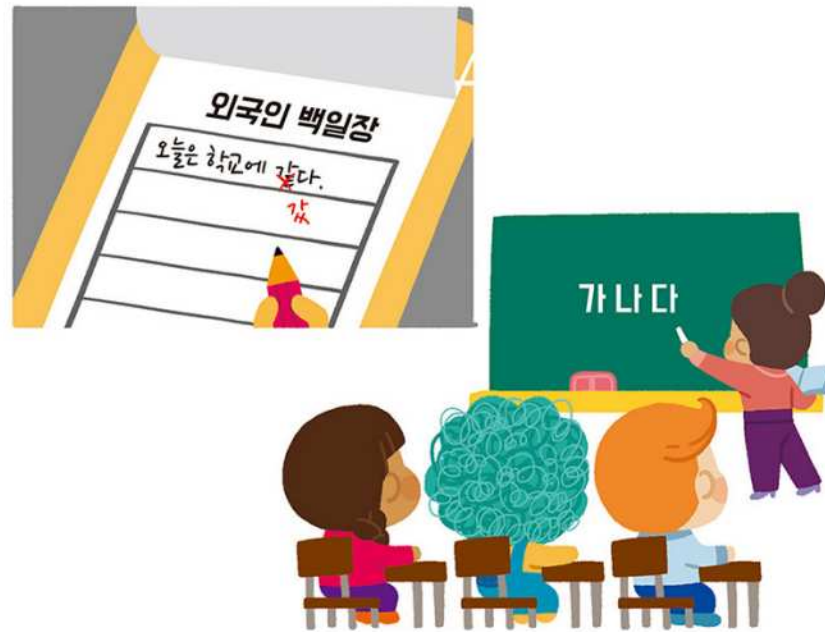


1980년대에
영국 버밍엄대가 콜린스 출판사와
2천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것을 토대로 코빌드(COBUILD) 영어 사전을
편찬했어요.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 사전>,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도
모두 말뭉치를 활용했습니다.

말뭉치는 어디에 쓰일까요? - 언어 교육

말뭉치는 언어 교육에도 유용한 자료예요.
외국어를 가르칠 때 말뭉치를 활용하면 가장 많이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뽑아 가르칠 수 있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언어를 수집해서 말뭉치를 만들기도 해요.
이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면 외국어를 배울 때 자주 틀리는 문법, 어휘, 표현 등을 분석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거나 교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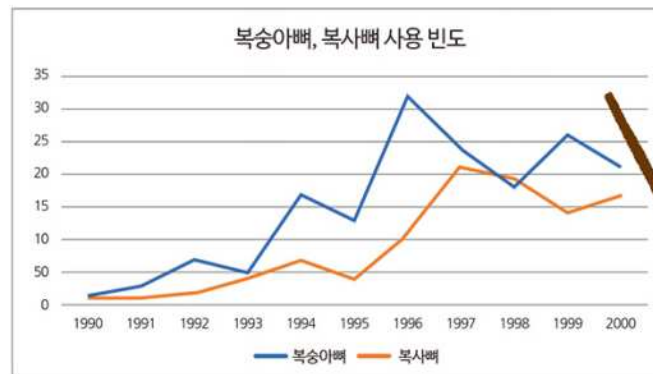


말뭉치는 어디에 쓰일까요? - 언어 연구 및 어문 정책 수립

말뭉치는 언어를 연구하고 어문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꼭 필요해요.

'복숭아빠', '복사빠' 라는 말을 아세요?

말뭉치를 분석해서 두 단어의 사용 빈도를 측정해 보니 '복사빠'와 함께 '복숭아빠'도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2011년에 두 단어 모두 표준어가 되었어요.



말뭉치를 분석해서 언제부터 그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는지, 어느 때에 그 단어가 많이 쓰였는지, 시대에 따라 단어의 형태와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행

송리단길

혼행족

맛세권

객리단길

한글로

소비 요정

2018년 신어
2019년 신어
2020년 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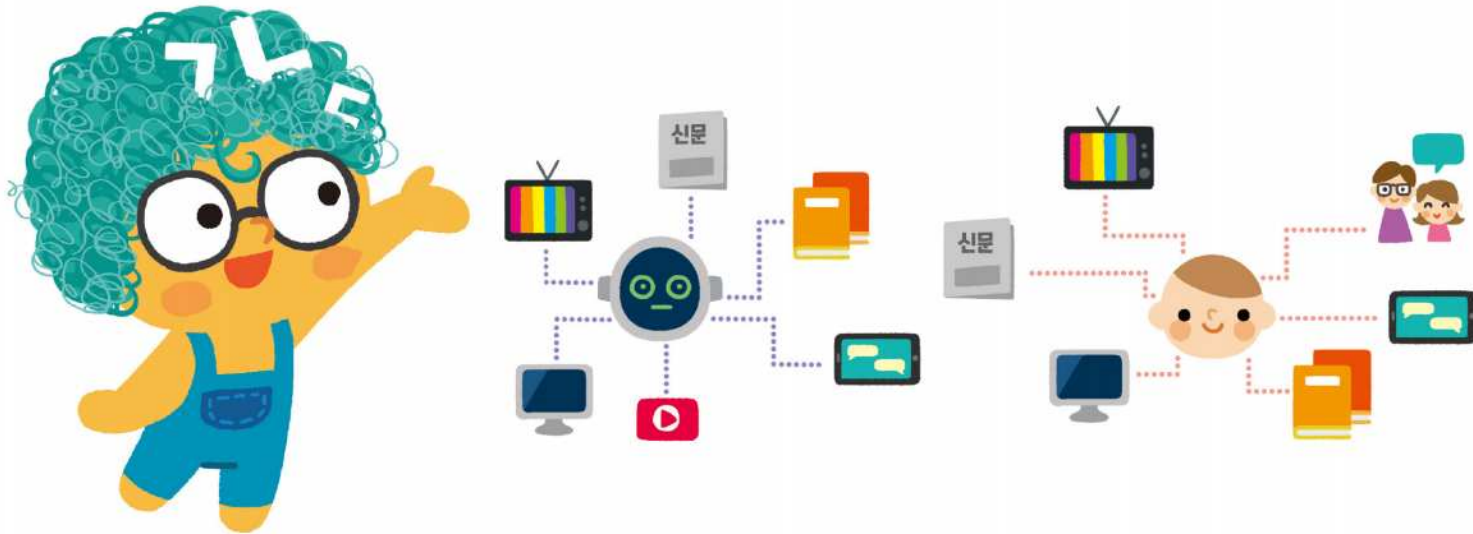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말뭉치는 기존의 언어 연구 분야 외에도 인공 지능 기술 개발에 꼭 필요한 자원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인공 지능 스피커나 로봇 등에는 음성 인식, 언어 이해, 번역 등의 다양한 언어 처리 기술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언어 처리 기술은 최근에는 컴퓨터가 말뭉치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학습할 수 있는 말뭉치가 많을수록
컴퓨터가 인간의 말과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 지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말뭉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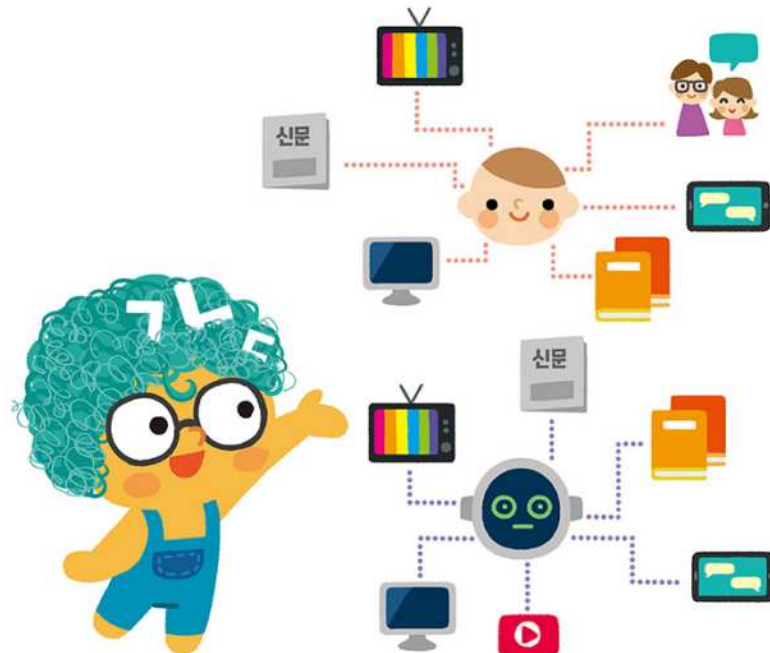
컴퓨터가 말을 학습한다고요?



컴퓨터가 말을 학습한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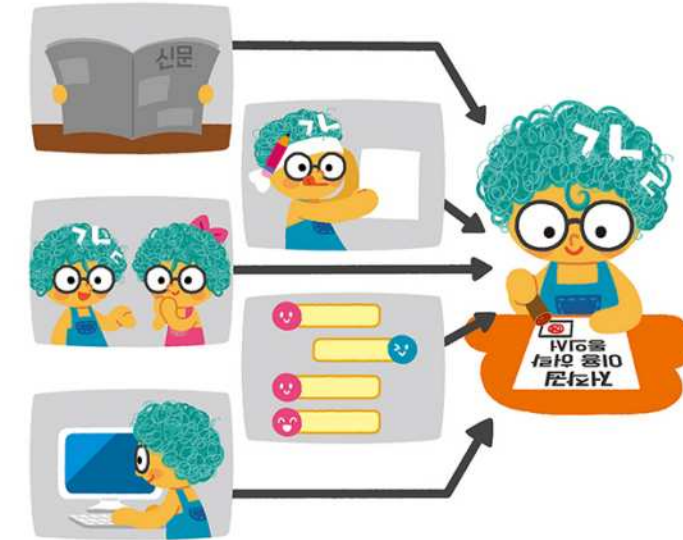
세상에 태어나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주변의 말과 글을 듣고 보면서
차차 말과 글을 배우고 그 말과 글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며 지식을 쌓아나갑니다.

컴퓨터(인공 지능)가 아이처럼 언어를 듣고, 이해하고, 말하며, 정보를 찾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알고리즘과 언어 학습 자료인 말뭉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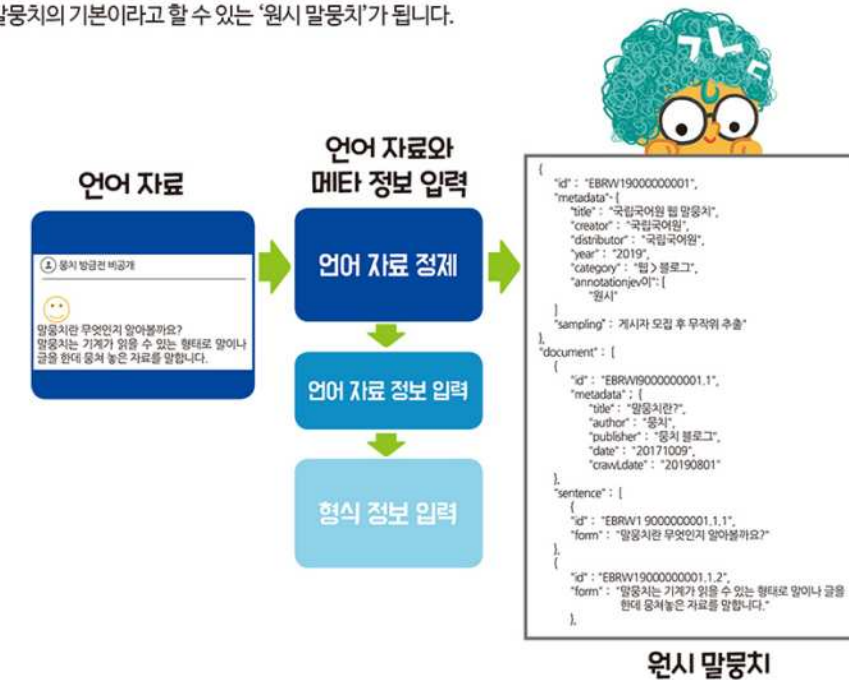
말뭉치는 어떻게 만들까요? - 언어 자료 수집, 저작권 이용 허락

말뭉치를 만들려면 먼저 말뭉치의 재료가 될 언어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 책, 일상 대화, 메신저 대화, 블로그나 게시판의 글 등 다양한 언어 자료가 모두 말뭉치의 재료가 됩니다.
수집한 언어 자료를 말뭉치로 만들어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말뭉치는 어떻게 만들까요? - 언어 자료와 메타 정보 입력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까지 마친 언어 자료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일상 대화와 같이 글이 아닌 말로 된 언어 자료는 말을 글로 바꾸어 입력합니다.
여기에 언어 자료의 종류나 제목, 작성자, 출처 등 언어 자료의 특징이나 성격을 알려 주는 정보와
문단이나 문장 경계를 알려 주는 형식 정보 등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입력하면
말뭉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 말뭉치'가 됩니다.



말뭉치는 어떻게 만들까요? - 분석 정보 입력

원시 말뭉치에 품사 정보, 의미 정보, 문장 구성 정보 등 여러 가지 분석 정보를 더하여 '분석 말뭉치'를 만듭니다.
이때 분석 정보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특별한 형식으로 덧붙입니다.

형태 분석 말뭉치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의 품사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붙여 만듭니다.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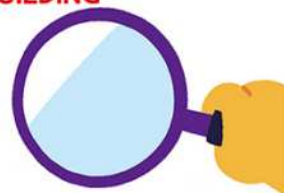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말샘> 등 사전을 기준으로 의미 번호를 더하여 만듭니다.

눈꽃__001/NNG이/JKS 떨어지__001/VV어요/EF 또/MAG 조금씩/MAG 떨어지__001/VV어요/EF
보__001/VV고/EC 싶/VX다/EF 보__001/VV고/EC 싶/VX다/EF 얼마나/MAG
기다려__001/VV어아/EC 또/MAG 몇/MMA 밤__001/NNG
을/JKO 더/MAG 새우__001/VV어아/EC 너__001/NP ㄹ/
JKO 보__001/VV게/EC 되__016/VV ㄹ/JKO 만나__002/
VV게/EF 되__013/VV ㄹ/JKO
- 방탄소년단 '봄날' -

개체명 분석 말뭉치

인명, 단체, 지명, 수량, 날짜 등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나 어구에 대한 정보를 더하여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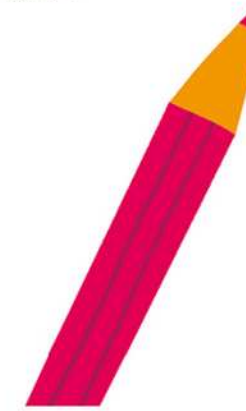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쭙보면
아버지/CV_RELATION는 항상 양화대교/AF_BUILDING, 양화대교/AF_BUILDING
이제 나는 서 있네 그 다리 위에 그 다리에
- 자이언티, '양화대교' -



상호 참조 해결 말뭉치

하나의 글 안에서 같은 대상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 것들을 찾아 서로 연결한 말뭉치를 말합니다.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쭙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양화대교 이제 나는 서 있네 그 다리 위에 그 다리에
- 자이언티, '양화대교' -



구문 분석 말뭉치

문장을 분석하여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더해 만듭니다.



- 이문세, '광화문 연가' -

감성 분석 말뭉치

영화 관람 후기나 상품 평가 같은 글에서 내용이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 등을 분석하거나
글을 쓴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여 만듭니다.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파악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역 말뭉치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쌍으로 만든 말뭉치입니다.
자동 번역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소중한 언어 자원 '말뭉치'를 만듭니다.

원시 말뭉치 구축

국립국어원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의 우리말을 담아내는 말뭉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



책, 잡지, 기타 문서 등
신문 외의 단행본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의
강연, 발표, 토론, 인터뷰, 대화



메신저 대화 자료



일상 대화 녹음 자료



누리 소통망(SNS),
블로그, 웹 게시판



일기, 편지 등
일상 생활 글쓰기 자료

분석 말뭉치 구축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한 말뭉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형태 분석 말뭉치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



구문 분석 말뭉치



개체명 분석 말뭉치

광복 75주년 기념 우리 말글 지키기 운동



8.15 광복 75주년 기념

우리 말글 지키기 운동

일제강점기(1910~1945)

1910년대

훈민정음이 '한글'로 불리기 시작

'한글'이라는 이름은 '조선언문회' 활동을 기록한 《한글모죽보기》에 "배달말글몸음"을 '한글모'로 바꿨다"라는 설명에서 처음 등장함.

1921년

조선어연구회 창립

장지영, 최현배, 이병기 등 주시경의 제자들이 창립함. 우리 말글의 규범을 정하고 보급해 한글의 중요성을 알림.

1910년대

조선어 표준어 사정회(사진 출처: 한글학회)

1926년

'가갸날' 제정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해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 (오늘날의 한글날)'로 정함.

1927년

월간 동인지 《한글》 창간

우리 말글의 규범을 연구한 결과를 실어 대중에게 보급

1931년

'조선어학회'로 이름 변경

조선어문의 연구와 통일을 위한 기관인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꾼 후, 우리말사전 편찬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 발표

표준말의 원칙과 표기의 규정을 자세히 설명해 보급함.

1935년

말모이 운동

사전을 편찬하고자 《한글》에 각 지역 방언을 모으는 광고를 낸.

1938년

일제가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

학교에서 한글 교육과 우리말 사용을 금지, 한글 서적 출판도 금지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조선어학회 회원 33명이 강제 연행됨. 함흥 경찰서에 끌려가 옥고를 치렀고 일부는 목숨을 잃음. 13년간 작성한 《우리말사전》 원고가 모두 압수되어 사전 편찬이 중단됨.

"다시 사전 원고를 쓸 생각을 하니 일이 캄캄했다. 고문 당할 때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 정태진

1945년

광복

조선어학회 회원들 석방 후 초·중등 국어 교과서 편찬

1947년

10월 9일 《조선말큰사전》 제1권 발간

1957년 제6권이 발간되며 완간

그 밖에 1920~30년대 비문해 퇴치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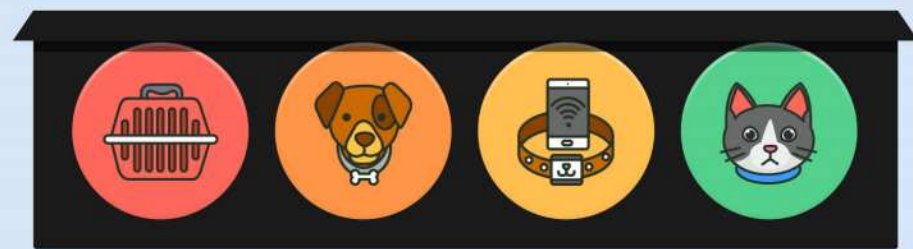
조선어학회와 언론사가 함께 우리 말글을 지키고자 한 노력

조선어학회: 신문사가 문자 보급 운동에 쓸 교재를 만들거나, 한글 강습회를 열.

조선일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문자 보급 운동'을 펼침.

동아일보: '글장님(1930년대 당시 비문해를 지칭한 말) 없애기 운동', '브나로드(민중 속으로)라는 뜻의 러시아어 운동'을 펼침.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반려동물 공공 예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인 시대예요.



‘반려동물 공공 예절’의 기본!
①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배변_후_뒤처리는_꼭함께!

이웃을 배려한 ‘반려동물 공공 예절’
② 목줄, 입마개, 인식표 착용

#공공장소에서_반려견_목줄은_2미터_이내로

안전한 ‘반려동물 공공 예절’
③ 공공장소에서는 이동용 가방으로 이동

#반려동물과_대중교통_이용은_이동장으로!

책임 있는 ‘반려동물 공공 예절’
④ 반려동물 등록하기

#반려동물도_한_가족_동물_등록_의무화

반려동물 공공 예절은 ‘페티켓’을 다듬은 우리말로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을 뜻합니다.

건강한 ‘반려동물 공공 예절’
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동물병원_방문_노령견은_정기_검진_필수!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공공 예절 문화**를 만들어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반려동물 공공 예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인 시대예요.

‘반려동물 공공 예절’ 5가지

반려동물 돌봄족을 비롯해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살펴볼까요?

소비로 나를 표현하는 소신 소비



소신 소비는 '미닝 아웃'을 다듬은 우리말로,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나 신념 등을 표현하는 일'을 뜻합니다.

자신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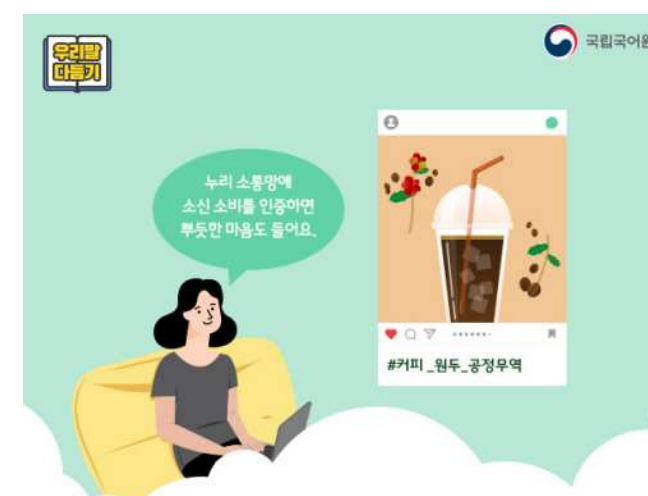
사회적 물의를 빚는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나타내기도 하죠.

판매금의 일부가 기부되는 물건을 사서
소신 소비를 할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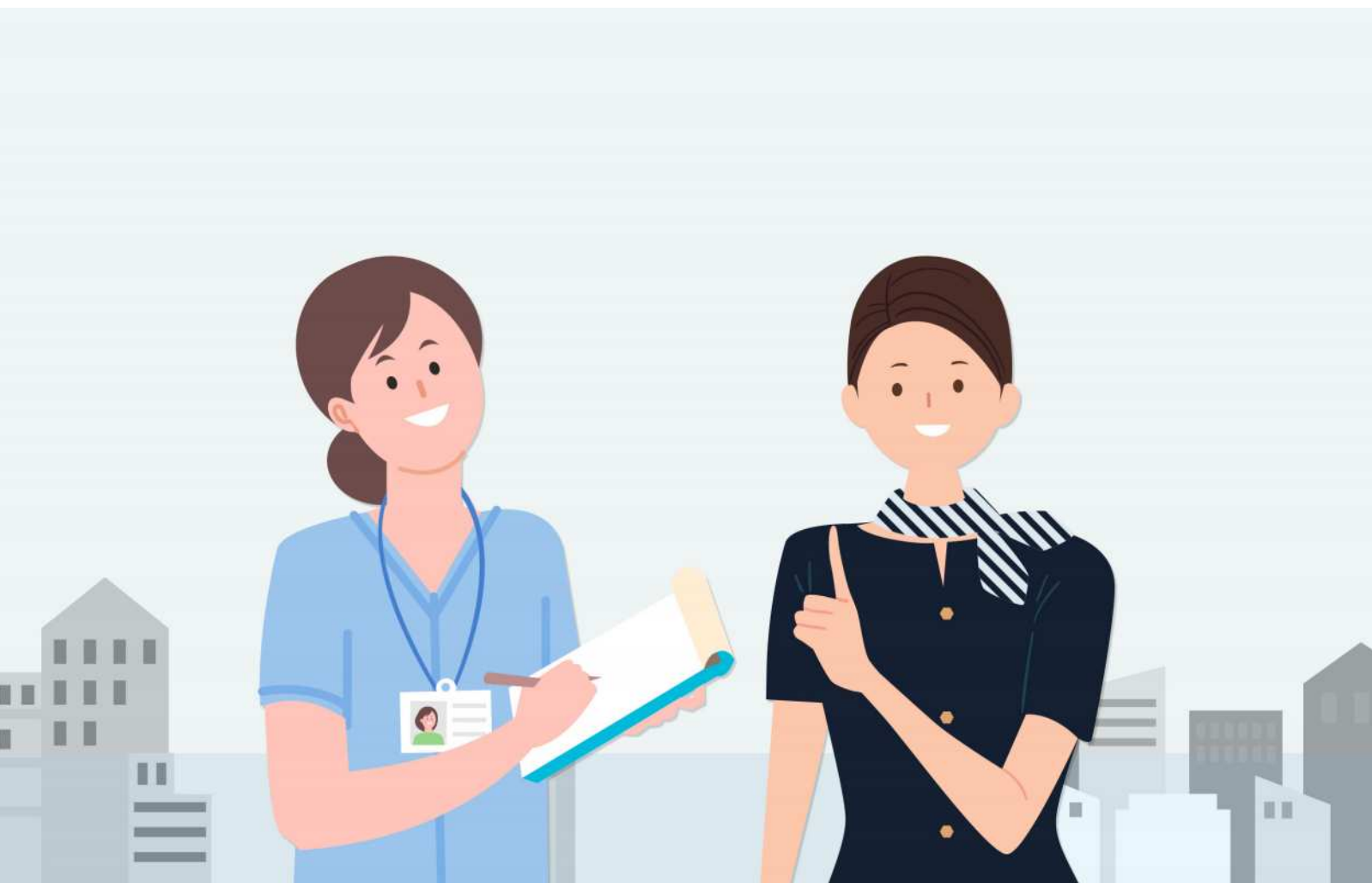
여러분은 소비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신 소비**'의 흐름이 퍼지고 있어요.



소신 소비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나를 마음껏 표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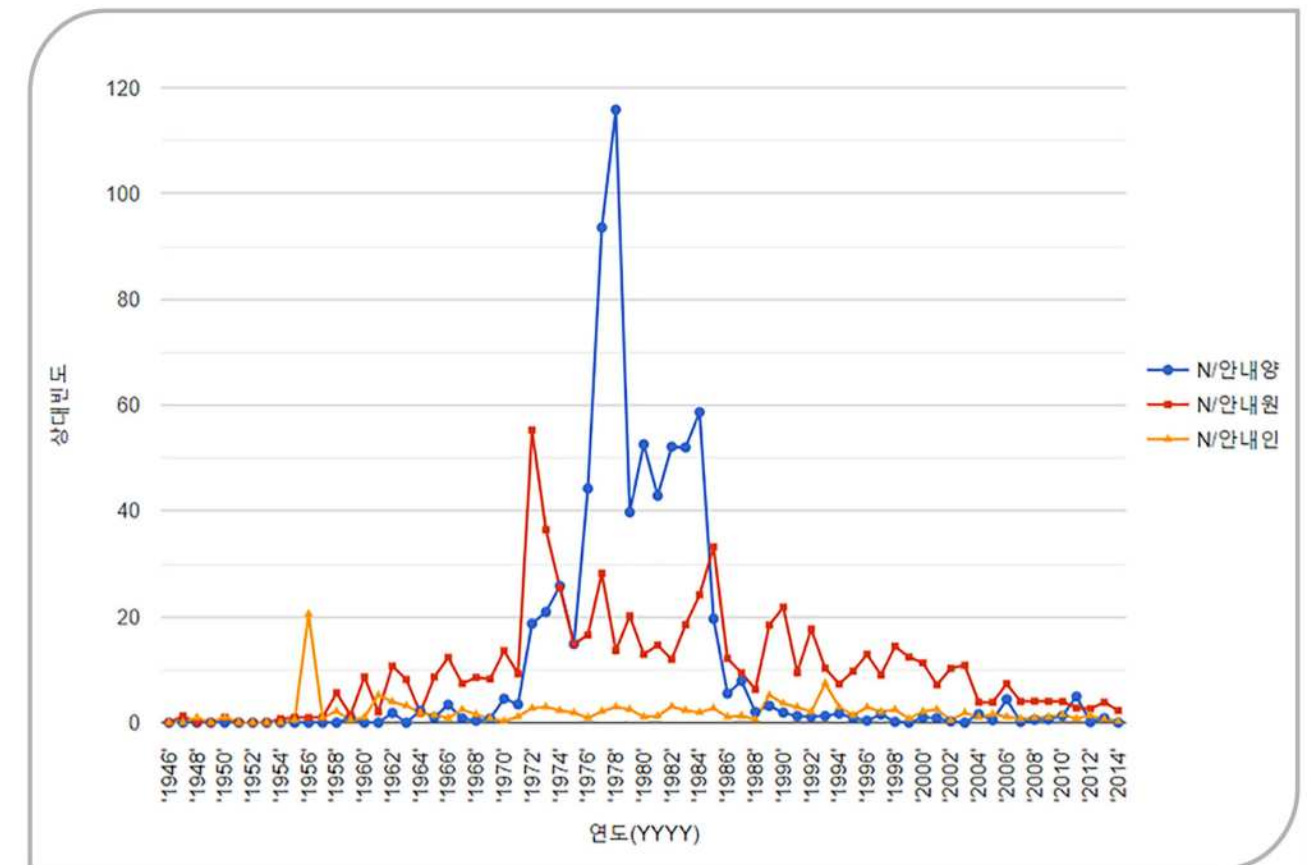
사라진 말들, ‘안내양’, ‘간호원’, 그리고 ‘장애우’



글. 김일환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다. 이들 단어는 독립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종종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언중의 인식이나 평가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어느 집단이나 계층을 지칭하는 단어들 중 사용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 한다.

사라진 ‘안내양’



▲<그림 1> ‘안내양, 안내인, 안내원’의 연도별 상대 빈도(동아일보 말뭉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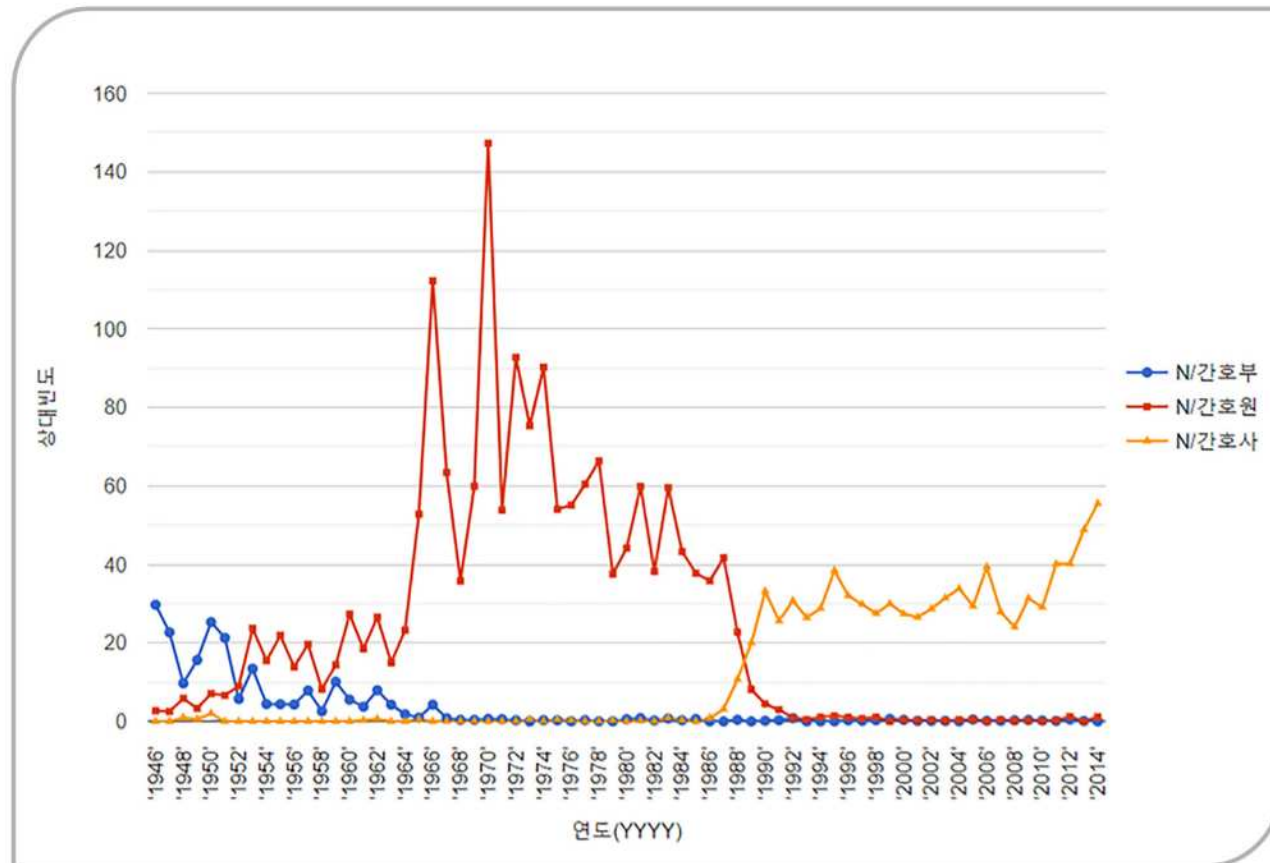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듯이 ‘안내양(案内嬢)’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 높은 빈도로 사용되다가 이후 급격히 사용이 감소되었다. ‘안내양’은 ‘안내’와 관련된 다른 말들인 ‘안내인(案内人)’ 또는 ‘안내원(案内員)’과 비슷한 말일 것 같지만 ‘버스의 여차장’을 지칭하는 매우 특수한 사용역*을 가진 단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우리말샘』에는 ‘안내양’이 ‘손님을 안내하는 젊은 여성’의 의미도 갖는 것으로 뜻풀이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용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1987년, 승객이 직접 돈을 내고 버스에 타는 ‘자율버스제’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버스에서 차비를 걷던 여성 차장이 사라지게 되고 ‘안내양’도 그와 운명을 같이 한 것이다. 이제 ‘안내양’은 복고풍의 영화나 드라마에나 등장하는 추억의 인물이 되어 버렸다. 부수적인 현상이지만 ‘안내원’과 ‘안내인’의 빈도도 2000년대 이래로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아마도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사람의 안내보다는 손 안의 ‘만능 안내인’에게서 모든 정보를 얻기 때문은 아닐까?

*사용역: 화자가 특정한 상황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바꾸어 사용하는 것 또는 그러한 영역(『우리말샘』)

‘간호부’에서 ‘간호사’까지

앞서 살펴본 ‘안내양’은 ‘안내원, 안내인’과 의미의 일부를 공유하기는 했지만 지칭하는 대상은 전혀 달랐다. 그러나 지금부터 살펴볼 ‘간호부, 간호원, 간호사’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한 다른 명칭이다. 이 단어들은 시대에 따라 흥미로운 추세를 보인다.



▲<그림 2> ‘간호부, 간호원, 간호사’의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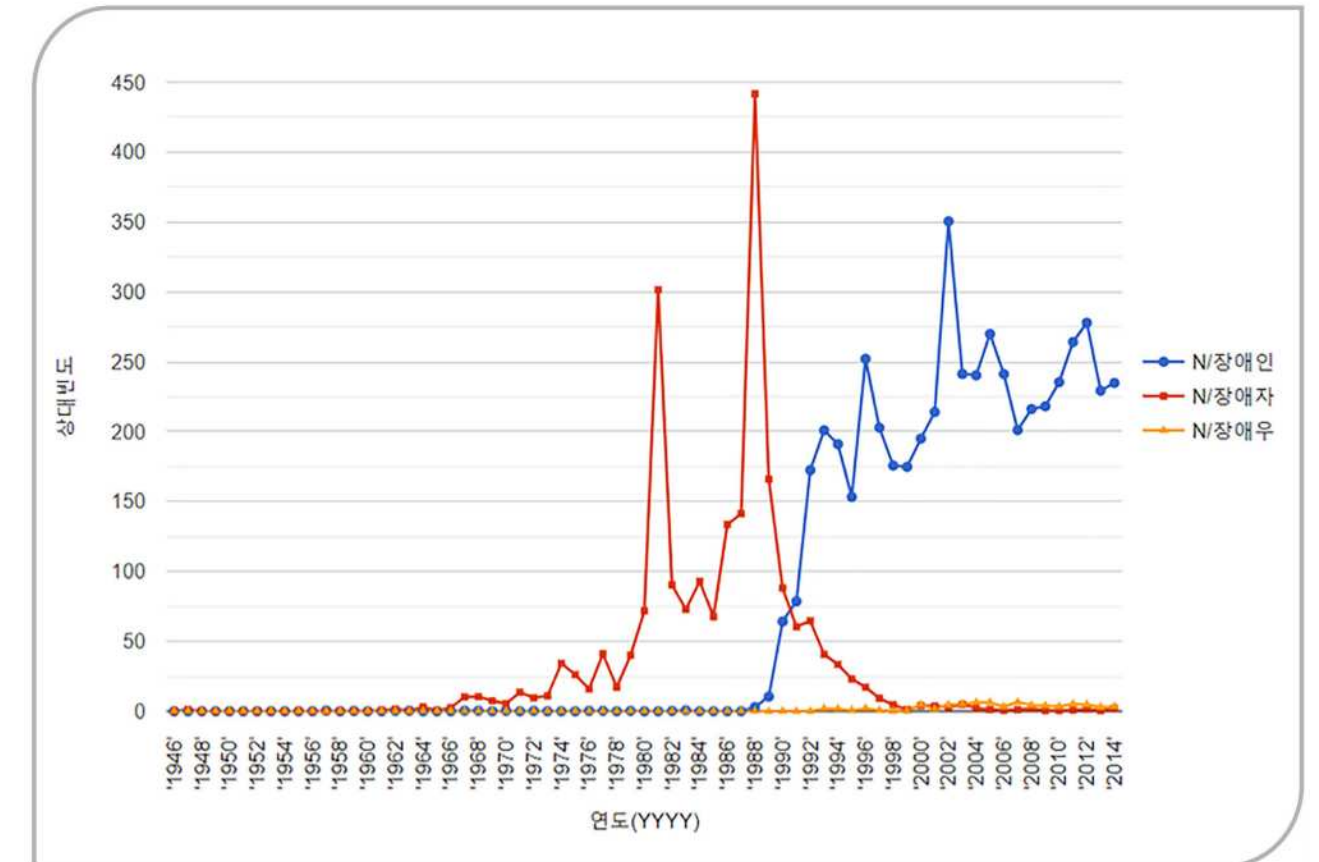
<그림 2>에 따르면 1950년대 이전에는 ‘간호부(看護婦)’가 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간호’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891년부터이다.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돌보는 일을 맡는 사람’을 이때부터 ‘간호부’라 부른 것이다. 그런데 1950년대 초부터 ‘간호원(看護員)’이 압도적인 사용상의 우위를 보이면서 ‘간호부’와 ‘간호원’의 위상이 전도된다.

왜 그랬을까?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이 마련되면서 간호 일을 맡는 직책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 ‘간호원’으로 규정된 것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인다. 그러다가 1990년대 즈음에는 ‘간호사(看護師)’가 등장하면서 ‘간호원’과 다시 자리바꿈을 한다.

이번에는 1987년 『국민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간호원’ 명칭이 ‘간호사’로 변경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의 변화 속에 숨어 있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단순하지만은 않다. 과거 ‘간호부’는 양성소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간호원’은 간호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간호원’이라는 명칭은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나타낸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도 생겼다. 이렇듯 학문적 입지도 넓어지고 전문성도 심화되다 보니 그에 적절한 말을 찾은 것이 ‘간호사’인 것이다. 우리는 직업을 나타내는 말 하나도 이렇게 조심스레 선택하여 쓰고 있다.

‘장애우’보다는 ‘장애인’으로

마지막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자.



▲<그림 3> ‘장애자, 장애인, 장애우’의 사용 빈도

<그림 3>을 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장애자(障礙者)’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 무렵부터는 ‘장애인(障礙人)’의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빈도지만 ‘장애우(障礙友)’라는 말도 ‘장애자, 장애인’과 함께 쓰이고 있다. 이 ‘장애우’는 장애인에 대한 친근함을 나타내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쓴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장애우’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을까? ‘장애우’가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장애인은 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의존적 존재라는 편견을 조장한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어떤 집단이나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말은 모든 인칭에서 두루 쓰일 수 있어야 하지만 ‘장애우’는 자기 자신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라는 점에도 한계가 있는 말이다.

그리고 왜 장애가 있으면 원치 않아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장애우’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사용이 억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시대마다 크게 달라져 왔다. 그리고 그 말들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 주는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지적 장애인’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들을 ‘백치’, ‘정신 박약아’, ‘정신 지체자’ 등 차별적인 말로 부른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가혹한 말들이다. 지금은 그나마 언어 속에서라도 배려와 공감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도가 된다. 물론 그것도 지나쳐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말 ‘너는 내 운명’ 해외 공연 가서 한국어 가르치는 음악가 이호섭



문희옥의 ‘천방지축’,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 등을 작사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주현미의 ‘ 짝사랑’, 설운도의 ‘다 함께 차차차’, 이자연의 ‘찰랑찰랑’ 등을 연달아 만들며 대박 작곡가로 자리 잡았다. 삶의 애환을 녹진하게 담아낸 가사와 선율은 세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다. 누구보다 우리말과 가깝게 살고 있기에 해외 공연이 있을 때면 꼭 현지 한국어학당을 찾아 한국어 강의를 자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중가요의 문학적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으로 국문학을 공부하고, 문학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음악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을 예로 들며, 문학적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나라 노랫말도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한다. 바로 대한민국 대중가요 대표 음악가 이호섭이다.



사법고시 준비하다 대중가요 음악가가 된 사나이

《선표, 마침표.》

얼마 전 송해 선생님을 대신해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신 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40주년 특별무대에 말이지요. 작사 작곡을 하는 음악가 선생님들은 언제나 작업실에만 계실 것 같은데, 구수한 입담을 뽐내며 현장 관객뿐 아니라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으셨어요.

이호섭

올해 설날 특집이었는데요. 송해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맡았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7년 전에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송해 선생님 편찮으시면 대신 하는 파출 진행자로 불립니다. (웃음) 작곡가로 이름이 알려졌지만, 실은 <이호섭 임수민의 희망가요>를 비롯해 한국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27년째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이기도 해요.

특히 공개방송 전문 진행자다 보니 저는 관객이 많을수록 힘이 납니다. 무대가 익숙한 음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하.

《선표, 마침표.》

곡을 쓴다는 게 대단히 고독한 작업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종횡무진 왕성한 활동을 보여 주십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학박사 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이호섭

경남 의령군 지리산 자락 첩첩산중에서 자랐어요. 임진왜란 때 활약한 광재우 장군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조선어학회 간사장을 지내셨던 한글학자 이극로 선생도 우리 동네분이세요.

아직도 시골에서는 좋은 일이 있으면 동네잔치를 벌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동네잔치가 열렸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어학박사도 나고 문학박사도 나고, 다 나왔다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한글학회 회장을 지내신 김승곤 교수도 우리 의령 출신이세요.

《쉽표, 마침표.》

고향 마을 이야기까지 들어 보니, 음악가로 노랫말을 짓는 것뿐 아니라 우리말 자체가 선생님께는 운명이었지 싶은데요.

이호섭

어려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꼭 나무 위에 올라가서 노래했대요. 온 동네분들이 모두 바라보는 감나무 위에서 “나훈아가 부릅니다.”, “이미자가 부릅니다.” 하며 진행 놀이를 했대요. 어른들 일하시는 데 위안되라고 말이지요. (웃음) 동네분들이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냐.”고 걱정이 많으셨대요.

당시는 가수라고 하면 ‘판따라’라고 천대하던 시절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판사로 만들겠다고 애쓰셨는데, 저는 돈만 생기면 동네 레코드점에 가서 판을 사 왔어요. 어머니의 판사와 저의 ‘판사’가 참 달랐죠. 하하

《쉽표, 마침표.》

어머니의 판사와 선생님의 ‘판 사’가 몹시 달랐지만, 선생님은 사법고시 공부를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달라도 너무 다른 길입니다.

이호섭

사법고시 공부를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는... 방송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 제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큰집에 양자로 가 큰어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그 옛날 좌익이다 뭐다 고생을 하시면서 제가 그 연좌제에 걸렸어요. 판사는커녕 취직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반듯하게 공부하기만을 바라시고, 저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해 보겠다는 꿈 하나만 가지고 말이에요.



《쉽표, 마침표.》

당시 스물여덟 청년이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는 곡들입니다. 녹진한 삶의 정서가 잘 묻어나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이호섭

어린 나이에 ‘트로트’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서울에 올라와 초창기 7~8년을 인생 육십갑자를 다 살아 낸 것처럼 고생하며 보낸 덕인 것 같아요. 서럽고, 외롭고, 분한 일들을 그때 다 겪었거든요. 일부러 영감을 만들기도 해요. ‘우리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저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서 말이죠.

예를 들면 주현미의 ‘잠깐만’은 옆집에 젊은 부부를 보고 만들었는데요. 부부가 이사 왔는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현미 씨 곡을 의뢰받아서 구상도 할 겸해서 산책을 나오는데, 그 부인이 짐을 싸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남편 욕, 시댁 욕을 하는 거예요.

동네사람들 다 들으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저 부부도 처음엔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을 잠깐 불러 세워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멜로디와 노랫말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그 발길을 다시 멈춰요.”,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돌아설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잠깐만.” 하고 말이죠.

《쉽표, 마침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다시 떠올려 보니, 노래 속에 그날, 그 정경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술가만의 섬세한 시선이 새삼 느껴집니다.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술한 유행곡들을 만드셨는데, 그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곡이 있나요?



밑바닥에서 겪은 술한 경험, 고스란히 가사에 담겨

《쉽표, 마침표.》

나무 위에 올라가 노래 부르던 소년이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무작정 상경해 작곡가가 된 건데요. 정말 연극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호섭

무작정 상경해서 한 5~6년은 음반 가게를 찾아다니며 “제 작품 좀 봐 주세요.”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때 정말 안 해 본 일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어디서 빵 한 조각이라도 훔쳐 먹고 싶을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사랑의 불시착’ 같은 ‘댄스’와 ‘발라드’를 했어요.

그러다 가수 문화육을 만나서 ‘사투리 디스코’를 발매했는데요. 이게 일주일 만에 대박이 나고, 주현미의 ‘잠깐만’도 유행하면서 ‘트로트’도 같이 하게 됐죠. 레코드사에서 잡상인 취급받던 제가 정말 말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니 하루아침에 인기인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곡 좀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가 제 나이 스물여덟 즈음이었습시다.

이호섭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제가 만든 곡은 다 사랑하는 자식 같아서 어느 녀석은 좋고, 어느 녀석은 싫다고 말하면 녀석들이 서운해합니다.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윽표, 마침표.》

작사 작업을 하시다 보면 습관처럼 즐겨 사용하는 낱말이 있고, 또 가사에 꼭 쓰고 싶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낱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섭

사랑, 그리움, 기다림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잊는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는 편은 아니에요. 잊는다는 건 그 사람과 인연을 완전히 끊겠다는 건데요. 인연이, 사랑이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련한 그리움이나 물빛 같은 무채색의 색깔과 향기, 이런 것들로 비유하거나 함축적으로 잊음의 정서를 대신 표현하려고 합니다. 반어법이나 복선도 많이 사용하고요.

《윽표, 마침표.》

한 곡이 완성되기까지 작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호섭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을 기준으로 작곡은 10분 이내면 완성이 돼요.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후루룩 하고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만들면 뭔가 억지스럽고 이상해요. 작사는 다듬다 보면 하루에 작품 하나 쓰기도 힘들어요. 좋은 작품을 공들여 쓸 때는 한 달을 훌쩍 넘기기도 해요. 지금까지 쓴 곡 중에 주현미의 ‘짝사랑’을 가장 빨리 썼어요. 20분 만에 완성했으니까요.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처참하게 끝나 버린 제 짝사랑을 배경으로 했거든요. (웃음) 아프게 끝나 버린 짝사랑을 회상하면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부터 써 놓고 “말해 주세요.”를 쓰니까 벌써 주제는 완성됐잖아요. 말해 달 랐고, 말해 주면 답을 해야 하니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딱 가사가 완성되는 거죠.



대중가요의 문학적 가치, 과학적으로 조명하고파

《윽표, 마침표.》

선생님은 누구보다 우리말과 인연이 깊으십니다. 특히 해외 공연을 하실 때마다 꼭 현지 한국어 학당을 찾아서 한국어 수업을 해 오셨어요. 계기가 있었나요?

이호섭

94년에 한국방송 라디오에서 기획한 사할린 공연을 진행한 일이 있어요. 그때를 시작으로 해외에 갈 때마다 우리말과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공연은 중국의 동북 3성,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연해주, 카자흐스탄 등의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합니다.

참, 국어원에도 고마워요. 가 보면 우리말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한글학 당, 한국어학원, 세종학당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고려인이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우리 말이 고립되고 왜곡되고, 점점 잊히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언어를 잊으면 모든 걸 잃어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해외 공연 때는 꼭 근처 한국어학당에 들러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윽표, 마침표.》

음악가의 한국어 수업,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호섭

한글의 종결어미 ‘했다, 했습니다, 할 거야’의 의미 분류도 가르치고요. 학생들이 억양이나 발음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아서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고, 한국 가요 가사로 수업도 하고요. 실제 사용하는 실용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고 가르쳐 주는 편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발음과 관련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연음이나 자음동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현상을 어떻게 소리 내는지 말이에요.

《윽표, 마침표.》

이번에 다시 국문학을 공부해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이야기를 더 여쭙 보고 싶습니다. 작사 작업이나 한국어 수업 등이 계기가 되셨나요?

이호섭

대중음악가인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중가요를 등한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가요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입증하고 싶어서 국문학을 공부해 작년에 서강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음악하는 분들은 문학을 모르고, 문학하는 분들은 음악을 모르니까 학제 간 연구가 되지 못했어요. 노래라는 것은 노랫말 따로 선율 따로가 아니거든요. 같이 연구해야 하는데, 지금껏 따로 해 오니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학제 간 병합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 이것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 오랫동안 음악을 해 온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 제가 국문학을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윽표, 마침표.》

대중가요와 우리말에 대한 선생님의 애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학교 밖에서도 대중가요 발전을 위해 힘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이호섭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12년 전에 한국가창학회를 만들었어요. 가창이란 것은 노래 부르는 방법인데요. 협회가 아니라 학회로, 학술단체로 만들었어요. 저희 학회에는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한국가창학회를 만든 까닭은 우리 국민 정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가요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 아프게”라는 노랫말에서 ‘가 자 하나를 발음할 때도 연음(‘가’), 경음(‘까’), 격음(‘카’)으로 발음하거나, 예령음(‘은’ 또는 ‘음’처럼 음악의 풍미를 더하는 효과음) 등을 붙이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의 다양성과 가수 저마다의 변주 등이 오늘날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데 한몫했다고 봅니다. 대중가요를 만드는 창작자로서 우리말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없는 것 같아요.



《심표, 마침표.》

선생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책도 집필 중이시라 들었는데요. 《심표, 마침표.》를 통해 살짝 소개해 주세요.

이호섭

음악가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국문학 연구자로서 우리 대중가요가 더욱 체계화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 노래 창법은 발성과 발음이 기본인데요. 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실기 교육을 하는 한국가요대학교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그걸 위한 《가요 가창학》이라는 책이 곧 나오고요. 하반기에는 《대중가요 작사론》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학교 설립과 책 집필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심표, 마침표.》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호섭

국립국어원은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연구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널리 알리는 일을 중추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해외에 나가서 한국어 수업을 할 때마다 국립국어원의 역할에 경의를 표하게 돼요.

그만큼 제게는 참 가깝게 느껴지는 기관입니다. 한국가요대학교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양 기관이 학문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구하면서 국립국어원으로터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문학적 가치를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글: 강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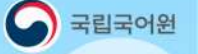
사진: 김영길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온라인 소식지 독자 만족도 설문 조사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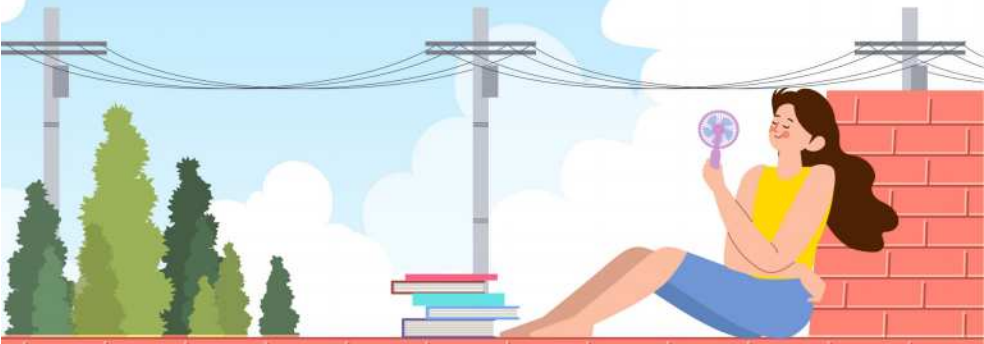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온라인 소식지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8월 28일(금)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과 《쉽표, 마침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독자 만족도 설문 조사 당첨자 발표



상품 지급
2020년 8월 28일

당첨 선물

으뜸상
문화상품권
20명

버금상
문화상품권
20명

으뜸상

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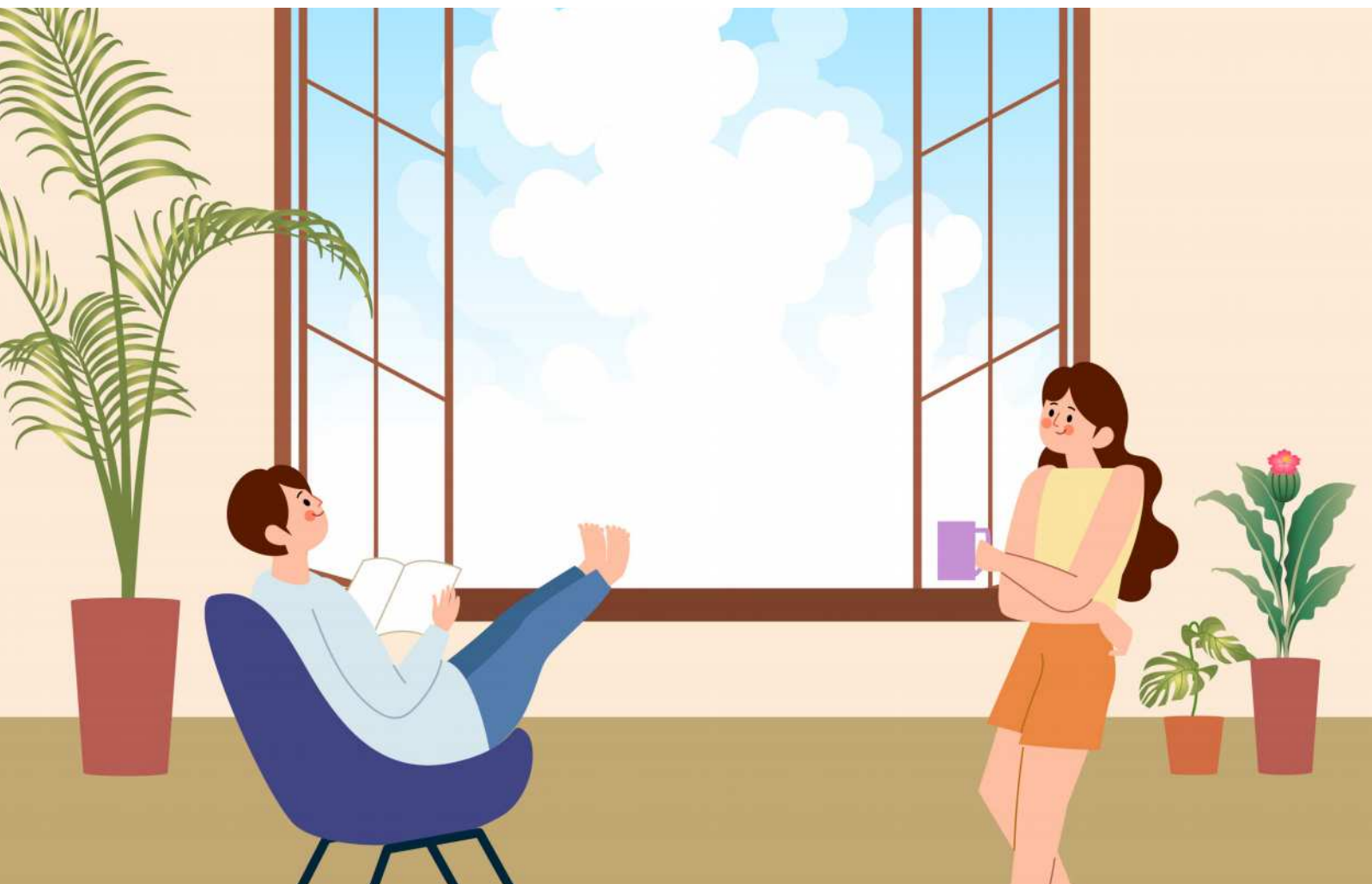
구*진(3325) 김*영(4792) 김*성(5910) 남*주(2328) 양*영(8188)
유 * (5926) 이*련(6554) 이*진(2431) 장*미(8891) 최*경(8432)

버금상

문화상품권

김*형(5648) 김*아(5204) 김*미(5056) 김*선(9856) 김*언(8324)
김*호(6866) 김*준(6833) 김*철(3226) 문*언(1143) 송*경(2050)
심*은(6443) 안*현(3994) 양*연(5978) 이*훈(3875) 이*성(7338)
이*민(7580) 임*은(0197) 전*경(7344) 정*진(2570) 최**제(2570)

우리말 풀기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호에 마지막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우리말 풀기’를 계속해 달라는 독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당분간 계속 찾아뵙 예정입니다.

8월 첫째 주 <<쉽표, 마침표.>>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시 돌아온 ‘우리말 풀기’ 꼭 참여해 보세요!

문제 1

고등학교의 교과서들에서는 교육적 편의를 위해
‘종결 표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이라는 용어도 흔히 써 왔으나,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는 언어학 용어인 코퍼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에요.
‘실뭉치’, ‘숨뭉치’에서 ‘뭉치’는
‘한데 뭉치거나 말거나 감은 덩이’를 말하죠.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3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인 시대예요.
반려동물 돌봄죽을 비롯해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
‘’을 살펴볼까요?
반려동물 ‘’은 ‘페티켓’을 다듬은 우리말로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을 뜻합니다.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4

또한 고려인 사회에서는 ‘올고배, 올구배’라는 말도 쓰이는데,
이는 ‘’ 즉 ‘고려인과 러시아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과
고려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단서 표준어 바깥의 세상

문제 5

「국민의료법」이 마련되면서 간호 일을 맡는 직책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이 ‘간호원’으로 규정된 것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인다.
그러다가 1990년대 즈음에는 ‘□□□’가 등장하면서 ‘간호원’과 다시 자리바꿈을 한다.

단서 말뭉치로 바라보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8. 4.~2020. 8. 18.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9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한*정(3427) 박*정(1115) 최*태(2586) 최*은(4930) 변*은(9287)
김*선(8610) 명*라(9899) 김*혜(0247) 장*우(8165) 김*선(4403)

우리말 풀기



끝이 없을 것 같던 긴긴 장마가 물러갔습니다.
해가 반가운 것도 잠시, 주변 안타까운 소식에 더욱 마음이 쓰이는 요즘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힘겨움을 나눌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쉽표, 마침표.>>가 준비한 커피 한잔 드시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제 1

다섯째, ‘□□’는 화자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바꿔 말하면 ‘□□’는 화자가 문장에 자신의 심리나 감정을 담는 수단이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띄어 쓰냐 붙여 쓰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헛갈리는 띄어쓰기!
되든 ‘□□□’ 띄어쓰기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우리말 실력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단서 실전 띄어쓰기

문제 3

여기에 언어 자료의 종류나 제목, 작성자, 출처 등 언어 자료의 특징이나 성격을 알려 주는 정보와 문단이나 문장 경계를 알려 주는 형식 정보 등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입력하면 말뭉치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 됩니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4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의 흐름이 퍼지고 있어요.
‘□□□□’는 ‘미닝아웃’을 다듬은 우리말로,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나 신념 등을 표현하는 일’을 뜻합니다.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5

한국가요대학교는한국어를 기반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양기관이 학문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구하면서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를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8. 18.~2020. 9. 1.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9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한*정(3427) 박*정(1115) 최*태(2586) 최*은(4930) 변*은(9287)
김*선(8610) 명*라(9899) 김*혜(0247) 장*우(8165) 김*선(4403)